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64호 【루계 제25873호】 주체106(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와 강습, 참관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초소로 떠나는 당세포위원장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주체혁의 혁명적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다섯번째로 되는 당세포위원장들의 대회함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참가자들의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박광호동지, 김평해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김여정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축하공연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은 줄기차고 억센 창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새시대를 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 당에 대한 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위대한 당, 찬란한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로 시작된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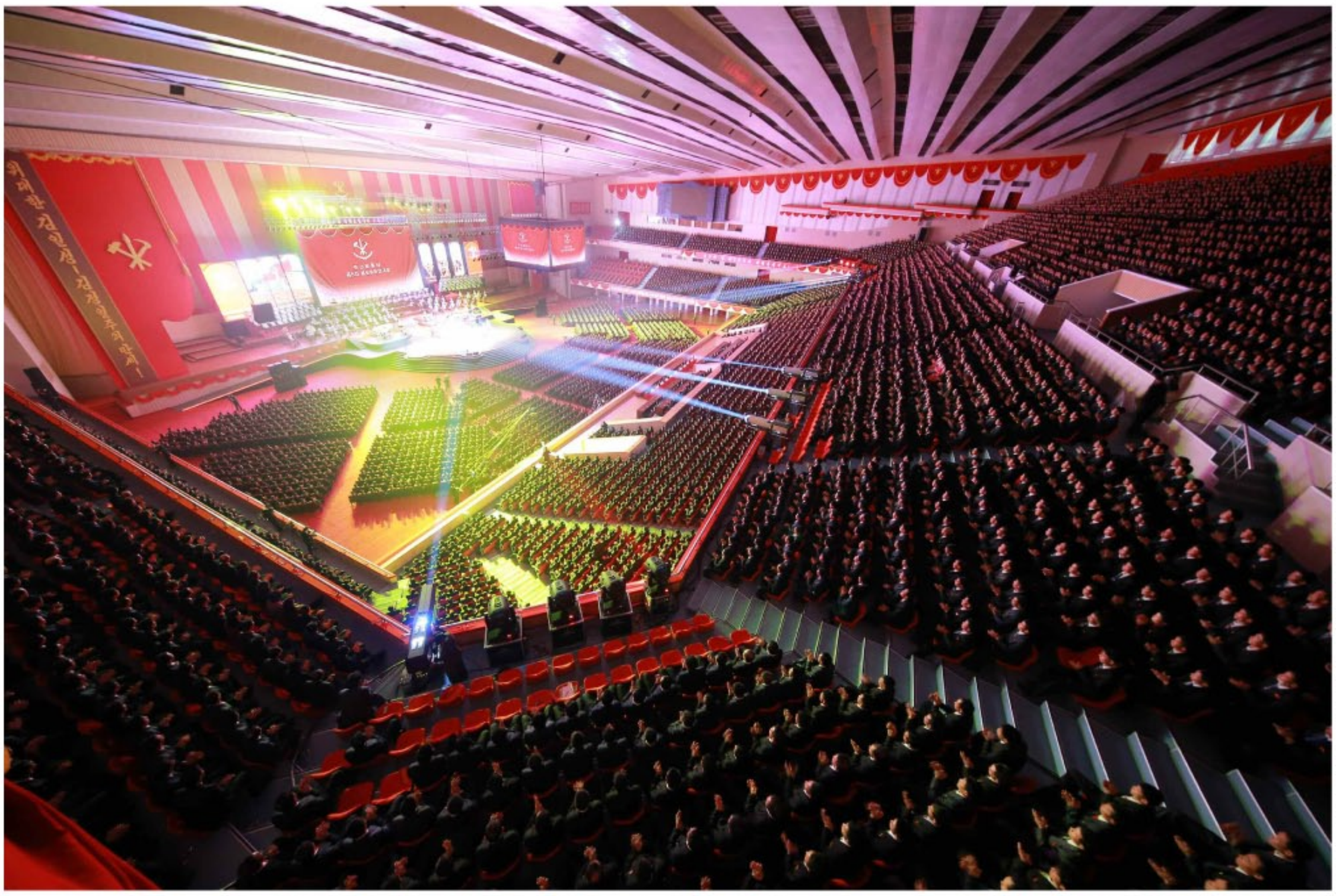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드높이 사회주의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위대한 당에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담은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어버이당에 드리는 노래》가 뜨겁게 울려퍼졌다.

공연무대에는 경음악과 노래련곡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관현악과 녀성중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녀성독창과 방창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녀성3중창 《당을 따릅니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혼성중창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녀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가무 《행복의 래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출연자들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를 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그 어떤 천지지변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에 대한 찬가들을 들으면서 대회참가자들은 당의 핵심, 당정책판철의 기수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광범한 대중을 당중앙위원회와 혈맥으로 이어주며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음을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며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흥하는 내 나라》 등의 종목들이 펼쳐졌다.

녀성5중창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판현악과 남성합창 《승리의 길》,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전진하는 사회주의》는 당중앙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었다.

혼성합창 《인민의 환희》, 녀성5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에서 출연자들은 락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이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밀승불패의 전투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첫 당세포인 건설동지사와 더불어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존엄높고 거룩한 우리 당의 력사를 전하는 설화시 《우리 당세포!》는 장내를 숭엄한 격정속에 잠기게 하였다.

기층조직중시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세포의 숨결이자 당의 숨결이고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이며 당세포의 모습이자 당의 모습이라고 하시며 전당의 당세포를 최소리나는 쟁쟁한 기층조직, 우리 당의 붉은 생명체로 만드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포위원장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한 보배로, 핵심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참된 동지, 전우가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낄 당세포위원장들의 혁명적의지가 맥박치는 설화시는 대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시련의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을 따라 걸어온 길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천만리,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길로 이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판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광명한 미래에로 질풍노도처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과시한 공연은 종곡 《인민은 일편단심》,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로 끝났다.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갈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의지를 백배해준 공연은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이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세포들을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만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우 리 당 세 포 !

설 화 시

우리 당세포!
친근한 이 부름속에
우리 당의 산악같은 믿음이 실리여있고
소박한 이 부름속에
어머니의 혈연의 정이 굽이쳐와
때없이 정답게 불러 찾는
그 이름 우리 당세포!

성스런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존엄높고 거룩한 우리 당의 력사속에
첫걸음부터 즐기찼던
위대한 우리 당의 당세포!

전설동지사!
우리 당의 첫 세포를 탄생시키신 그날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시던
그날의 수령님 그 격정이여
당창건도 중앙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층조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 기층조직을 인체의 세포에 비유하여
당세포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시던
숭고한 그 뜻이여

우리 가슴에 비쳐와라
해방후 자강땅의 깊은 산골집
성에불린 창가아래서
농촌마을당세포의 회의록도 보아주시며
서툴게 쓴 보고문도 고쳐주시느라
수령님 밤새워 밝히시던 그 광솔불이

마음속에 뜨겁게 쓰다듬어보노라
전국의 초행길에 가실 곳 많으셨건만
군당의 일군들도 너무 멀어 잘 가지 않는다는
개천땅의 외진 마을 당세포를 찾아
40리가 넘는 생눈길을 헤쳐가시어
당세포사업을 의논해주시며
수령님 허물없이 앉으셨던
그 헤여진 삿자리를…

전화의 그날
우리 수령님 일생에 잊을수 없는
큰 감동을 받으신
탁원의 주철직장 당세포총회
모든것이 불타버린 폐허우에서
전후복구전설은 넘려마시라고 말씀을
리는
한 녀당원의 신념의 목소리에서
승리의 신심을 백배로 굳히신 수령님

장산리와 원화리…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지도해주신 당세포총회는 그 얼마…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력사에 있어보았던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시기
최고사령관이 군사작전회의도 아닌
당세포총회를 지도해주신 이야기

저주로운 미국놈들때문에
생리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만나주시며
그 가슴들에 안고있는 아픔을 다 가셔주신
눈물겨운 사랑의 전설도
우리 수령님 몸소
분계연선마을의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며
풀피워주시지 않았던가

혁명을 이끄는 수령이시건만
금속공업성의 한 당세포에 소속되시여
당생활을 하신 수령님
머나먼 외국방문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당세포총회날도 잊지 않고 참가하시며
당세포사업의 새 전환을 가져오시였거니

오늘도 심장속에 새겨져있어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에
우리 수령님
전당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
당세포는 우리 당을 받들고있는 초석이라고
우리 당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모든 당세포비서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며
세포비서들에게 중요한 초소를 맡긴다시던
절절한 당부, 간곡한 그 유훈이

당세포!
당세포의 슬길이자 당의 슬길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
당세포의 모습이자 당의 모습이라 하시며
전당의 당세포를
쇠소리나는 쟁쟁한 기층조직
우리 당의 붉은 생명체로 만드신 장군님

세포위원장동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늘 먼저 찾아가 당비도 바치시고
나도 세포에 소속된 당원의 한사람이라시며
당세포앞에 언제나 겸허하시였고
당원들앞에 항상 평범하시였으며
당생활에 가장 순결하시였던
그이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면서도
위대한 당원이시였다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을 때에도
당비를 바치러 갔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천금같은 시간 바치시며
10분간이나 기다려주신 그 이야기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있어라

당세포의 강화를 위해
그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던가
우리 당력사에 처음으로 열린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에 보내주신 불멸의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
높으신 그 뜻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총성의 당세포대오가 끝없이 자라났거니

세포비서들은 혁명가들이라고
세포비서라는 부름은 명예도 직위도 아니지만
우리 당의 핵심이라는
값높은 믿음이 담겨있다 하시며
당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세포비서》, 《세포비서아바이》로
친근하게 불리워야 한다고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0가지 품성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어라

지구의 곳곳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수천만 당원들을 자랑하던 사회주의나라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내릴 때
더 굳건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장군님과 당세포, 이 혈연의 뉴대는

얼마나 가슴뜨거우셨던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이 올린
맹세의 편지를
《적기가》의 구절처럼 보고 또 보시며
당을 진심으로 따르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모든 당세포들의 본보기라고
사랑과 믿음의 회답서한도 보내주신 장군님

천길막장에 닥쳐온 뜻밖의 위험앞에
동지들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친
한 탄부의 소행을 두고 못내 가슴아프시여
정말 아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그는 당세포비서였다고 거듭 외우시며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자고
뜨거운 은정 베푸시였나니

진정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무리들처럼
우리 당의 기억속에 남아 빛나는
수많은 영웅세포위원장들!
공장과 포전, 어촌과 코정…
온 나라 방방곡곡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우리 당의 수십만 당세포들!

아, 어머니 우리 당의 당세포!
그것은 기쁠 때도 안아주고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며 감싸주는
어머니의 정깊은 옷자락과 같고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불씨와 같아
우리 원수님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절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시며
천만품을 들여 다져주시는 당세포!

당세포강화의 분수령을 이룬
제4차 세포비서대회장에 나오시여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에 붓지 않다고 하시며
뜻깊은 연설도 하신 원수님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당세포가 강화되고
우리 혁명은 그만큼
빨리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그리도 간곡히 말씀하셨거니

천만심장 울린 못 잊을 그날의 어버이 음성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내세워주는 품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고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진정을 바치라고
절절히 하시던 그 당부
그것은 정녕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위대한 우리 당의 목소리였다!

뜨겁게 들려오누나
일 잘하는 세포위원장들이 올린 편지에
한자한자 써보내주신
뜻깊은 노래가사의 구절구절이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
가슴깊이 새겨지누나
《당과 대중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가는
쇠소리나는 당세포가 되기 바랍니다》
어느 한 작업반의 평범한 세포당원들에게
천만뜻을 담아 보내주신 믿음의 친필이

세포위원장 한사람한사람을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로, 핵심으로
얼마나 금싸래기처럼 아끼시였으면
강원땅 폭발물처리대 당세포위원장의
장렬한 최후를 두고
그처럼 가슴아파하시였던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줄 아는
우리 당의 참된 세포위원장이였다고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였나니

그 사랑으로 더 세차게 높뛰는
우리 당의 혈맥!
그 믿음속에 더더욱 굳건해진
일심단결의 억년성돌!
바로 이런 당세포가
인민이 어머니처럼 부르는 《우리 당세포!》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제일 가까운
미더운 《우리 당세포!》

그렇다, 우리 당세포!
우리들곁에 아침저녁 함께 있는
어머니당의 다뜻한 숨결
당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다정한 속삭임
기대앞에서 포전길에서 천호가에서
기쁨과 슬픔,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의 세계!

진정 당세포, 이는 한가정, 한식솔이란 말
당세포위원장, 이는 한가정의 어머니란 말
어머니이기에
그대들은 밤별과 누구보다 친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묻은 위훈이 더 많은 사람들
가야 할 끝은길을 항상 가르쳐주며
헛디뎌세라 바로잡아 이끌어주고
힘겨울세라 떠밀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마음속에 있는 남모른 아픔도 고충도
누구나 서슴없이 말할수 있는 품
철의 신념을 안겨주는 용광로!
순결한 도덕과 의리를 알게 하는
인간수양의 학교!
결전장에서도 함께 있을 운명의 살붙이!

당세포는 크지 않아라
그러나 당세포의 힘은 얼마나 큰것인가
당원 한명이 열, 백을 불러일으키고
하나의 당세포가 백, 천을 일떠세우며
당을 받들어 단결하여 노도쳐 솟는
일심일체의 힘, 통일단결의 힘은 무한대!

우리 당의 말단조직인 당세포가 견실해야
우리 당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 당의 초석인 당세포가 튼튼해야
우리 당 옹위의 성벽이 끄떡없고
우리 당의 불씨인 당세포가 열렬해야
천만의 심장에 기적의 용암이 끓어번지나니

천하제일강국의 위상을 떨치고
사회주의만복을 현실로 꽃피우며
저 멀리 두메산골에서도
먼바다 외진 섬마을에서도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도록
전당의 세포위원장들이여!

우리 수령님들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멸사복무정신으로 꿋꿋이 이어가는
우리 당의 참된 동지, 전우가 되라
가장 어렵고 힘든 보통이에 어깨를 들이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여는 기수, 척후병이 되라
당세포위원장, 그 부름이
인민에겐 더없이 정겨운 호칭
원쑤에겐 제일로 두려운 대명사가 되게 하라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신념의 강자의 대부대를 키워
당중앙두리에 천만겹의 성새를 쌓으라
언제나 위대한 태양의 영상 우러르며
뜨거운 인정미와 밝은 열글로
어머니로동당의 신성한 그 이름 빛내가라
수십만 모든 당세포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맥박치는
총정의 붉은 전투대오로 만들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를 깎아서라도 기어이 실천하는
결사의 당세포들로 더 억세게 다져
우리 당의 멸승불패의 힘에
끝없는 활력을 더해주라
당중앙의 분신이 되라

오, 천만운명의 보호자이시고
백전백승의 향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세포위원장들이라는 한없는 긍지를 안고
주체의 당기 펄펄 휘날리며
영원히 신념의 한길만을 가자!
총정의 한길로 곧바로 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혁명승리 59돐에 즈음하여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를 29일 해당 부문 일군이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29일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9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르푸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과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9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빠벨 레사프브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과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29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

여 러 나 라 에 서 회 고 행 사 진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 체스꼬, 스위스, 스웨리예, 이슬란드, 단마르크, 핀란드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 도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행사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회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김정일화》, 《조선로동당기발》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다그 노폴은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 사상리론의 기장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계신다고 찬양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이리 와브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걸출한 령도자, 탁월성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미국의 악랄한 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고있는 조선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서기장 존 아르니 할도르쏜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천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체스꼬,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스위스단체가 선물을 드리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그이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스위스단체가 선물을 드리였다.

백두의 녀장군께 김정숙어머님 탄생 10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가 드리는 선물을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23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시였다.

그이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김정일대원수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안아키우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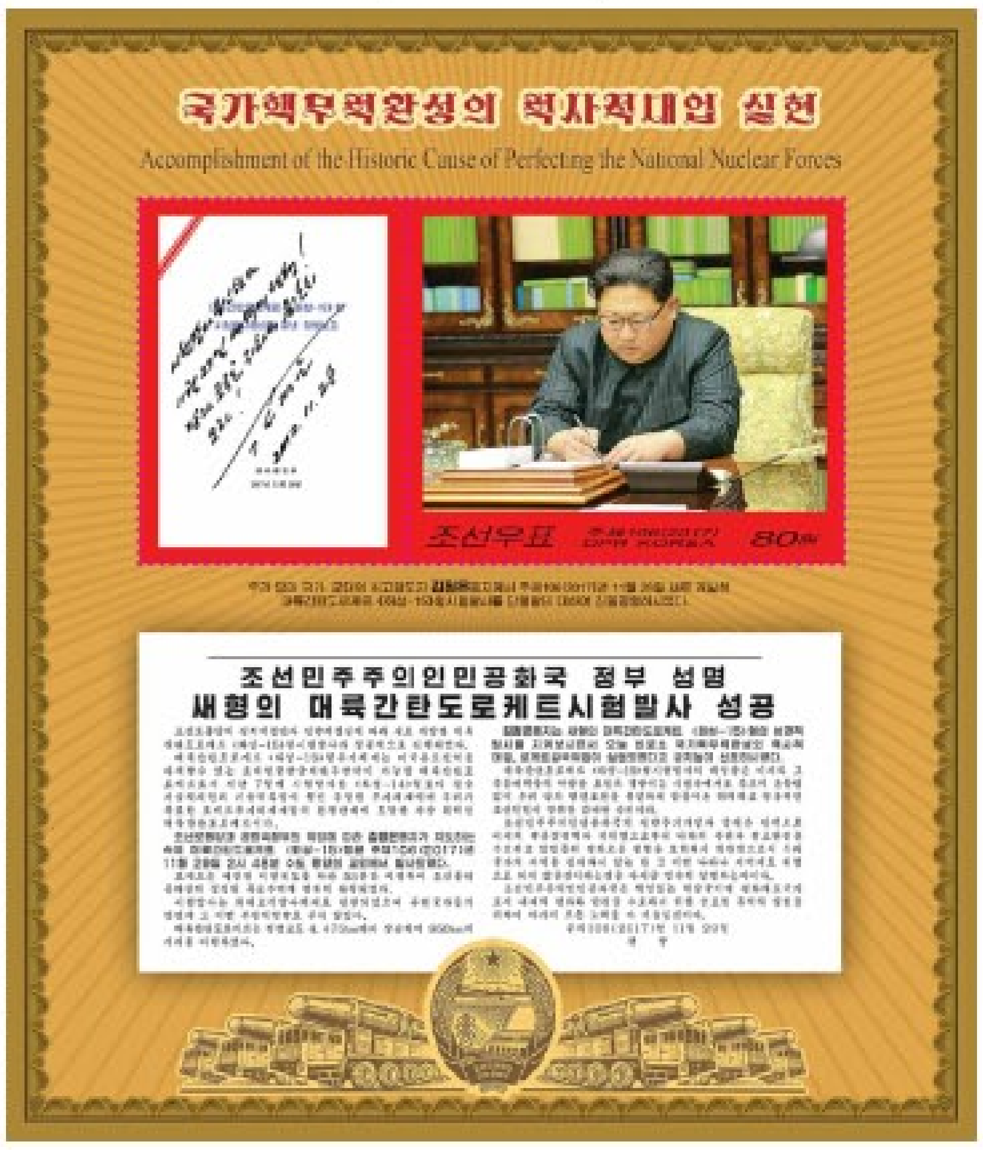
세계 진보적인류는 녀사를 반제투쟁과 녀성해방투쟁의 고귀한 귀감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우리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녀사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이 선물을 드린다.

본사기자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을 발행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을 기념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소형전지 4종, 개별우표 1종)을 발행하였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형상되여있는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는 영상사진문헌을 모신 우표가 있는 소형전지에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며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반영되여있다.

천지를 뒤흔드는 장쾌한 폭음을 터뜨리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실은 우리의 《화성-15》형이 눈부신 섬광속에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모습과 최대정점고도, 거리, 비행시간, 탄착점,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여주는 소형전지들과 개별우표도 있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생결단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승리를 안아오신 천출위인에 대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심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폭풍쳐 나아가는 영웅조선의 장엄한 기상이 담겨져있다.

【조선중앙통신】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경축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이 29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 직맹일군들과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2인시 《만대에 길이 빛나라 불멸의 업적이여》, 녀성3중창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으며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험천만한 최전방들과 포연이 자욱한 전투훈련장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수령결사옹위군, 불패의 혁명강군으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위용을 백배해주시고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희세의 천출명장의 불같은 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종목들이 무대에 펼쳐졌다.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더 잘 모셔갈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은 시이야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만을 바라옵니다》, 남성독창 《불타는 소원》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혼성2중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합창시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폭풍노도처럼 내달리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적열정과 철석의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13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캄보쟈 크메르민주당, 메히꼬인민사회당,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메히꼬조선친선협회, 뻬루조선친선협회 대표단들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혁명무력성 정치국장, 혁명무력성 군수련합체 위원장, 고등교육성 부상인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위원장,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인사들, 꾸바주재 여러 나라 무관단성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제1부위원장, 백두산위인흠모 로씨야위원회 부위원장,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일행,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일행,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일행, 로씨야조선친선로병리사회 위원장, 몽골-민주조선친선다리협회 위원장,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집행위원장, 몽골 김정일유치원, 몽골과학기술종합대학 교직원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일행,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회고 네팔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인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자티아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먄마 스노우려행 및 관광유한회사 부사장,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일행,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인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민주꽁고대학생 및 학생련맹 전국위원장,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외관계부부장일행, 앙골라발명가협회 위원장일행 등 각계 인사들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14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와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나이제리아 우만 헬러 주택건설회사 부사장이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보내여왔다.

【조선중앙통신】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결실

동신군안의 일군들

최근 동신군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군소재지를 지나는 도로들이 개건보수되고 질읍길이 콩크리트로 번듯하게 포장되여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특히 읍에서 군의 여러 리를 련결하는 새 도로가 시원스레 뻗어나가 지방경제발전과 주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더 잘 도모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성과속에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간직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인 복무기풍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

지난해 8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미 군소재지에 은정다리를 건설하여 인민을 위한 복무의 큰 자욱을 찍은 방정국군당위원장은 새 일감을 앞에 놓고 사색을 거듭하고있었다. 한것은 읍에서 약수리를 거쳐 동흥리까지 뻗어나가는 새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때문이였다.

당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공사가 방대한것만큼 군자체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였다. 어떻게 하면 자체의 힘으로 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던 군당위원장은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절절히 호소하였다.

물론 공사가 힘들고 아름찬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공사는 군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며 군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일군들모두가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간직하고 분발할 때 군자체의 힘으로 능히 공사를 해낼수 있다고 본다.

심장을 울리는 군당위원장의 호소에 군당일군들을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호응해나섰다.

구체적인 현지답사를 하면서 합리적인 도로로정을 확정한 군당위원장은 군도로건설대를 모체로 한 건설력량을 투입하고 세멘트, 착암기, 압축기, 운수기재 등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골짜기를 메우고 급한 벼랑을 깎으며 산허리를 잘라 도로를 개척하는 공사는 말그대로 힘겨운 전투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경제선동을 박력있게 진행하며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켰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졌다. 매일이다싶이 공사장에 달려나와 옹벽석축도 진행하고 도로건설이 설계의 요구대로 정확히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군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깐진 일본새는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민 밑불로 되였다.

함은철동무를 비롯한 도로건설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공사장에 천막을 전개하고 하루에도 여러차례의 발파를 진행하면서 옹벽쌓기를 비롯한 도로건설을 손색없이 진행해나갔으며 막아서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헤치며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군당일군들과 가족을 비롯하여 읍과 군안의 인민들도 건설을 함께 책임진 주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동원되였다.

먼 후날에도 손색없게 도로폭을 정하도록 하고 후방사업이자 공사실적이라고 하면서 건설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솔선 앞장선 군당위원장의 뒤를 따라 군일군들, 주민들도 아름다운 소행들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수십㎞에 달하는 도로공사는 올해 가을 성과적으로 완공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어렵고 힘든 도로공사를 군자체의 힘으로 해제낀데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군에서는 군문화회관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군계급교양관의 내부를 개건하는 공사, 어린이교통공원건설 등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과 한두해사이에 군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전진을 가져온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일본새는 앞으로 보다 큰 성과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떨쳐가자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한 경축모임들이 29일 근로단체들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농근맹일군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강염동지, 형제산구역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진옥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성일동지, 대성구역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박현호동지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당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 》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지난 6년간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자랑스러운 행로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밝혀주시고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3. 18혁명》과 《7. 4혁명》, 7. 28의 기적적승리, 《9월의 열핵폭풍》에 이어 온 행성을 진감시킨 《11월대사변》에 의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바라던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성취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눈물겨운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들이 조국보위의 주력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가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보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 500만의 총폭탄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엽동지의 보고에 이어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장 최정덕동지,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언동지,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실장 송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전군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령도하여오신 나날은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신 영웅서사시적행로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조국이 미제의 그 어떤 침략전쟁책동도 단호히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만 계시면 주체조선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과학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뚜렷이 나타나도록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원군사업을 더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전통을 계속 빛내일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 수백건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 이룩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척후대로서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올해에만도 수백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건설기계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용접봉을 전혀 쓰지 않고 철근을 용접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용제를 리용한 철근맞대용접방법은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의 속도와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건축재료학부에서는 우리 식의 새로운 세멘트수화열자동측정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세멘트의 세기를 신속정확히 예측하면서도 무기물첨가에 의한 세멘트특성변화를 제때에 쉽게 분석할수 있게 하여 세멘트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기능성건재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항균작용과 음이온발생능력을 가진 가공부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록색건재인 마그네샤세멘트와 요소수지접착제를 리용하여 건물내외부벽체의 보온, 장식효과, 공기정화 등을 실현한 기능성벽판을 개발도입하였다.

건재개발연구소의 새재료연구집단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한 새형의 화강석갈이용수지연마석을 만들어냈다.

건설공학부의 연구사들도 건식공법에 의한 건물내부장식구조의 설계와 시공방법을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였다.

국토환경보호학부에서는 효능높은 잔디록색강화제를 개발하여 잔디의 발육초기의 영양물질흡수와 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고온환경에서의 잔디피해를 막고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2. 8직동청년탄광 2갱 대보수소대 최동현동무를 가리켜 탄부들은 우리 당세포위원장이라고 부르고있다.

그 부름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탄전에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근 30년간 대오의 앞장에서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최동현동무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있다.

지난 9월 붕락이 채탄2중대의 앞을 막아섰을 때에도 최동현동무는 자진하여 붕락극복전투에 나섰다. 실천적모범으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당세포위원장의 참된 모습을 보며 채탄중대원들이 떨쳐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를 누구나 따르고있다. 오늘도 그는 나라의 석탄전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답게 언제나 이신작칙으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동통신원 김청일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영광 끝없다

온 세상에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

격동적인 날과 달들로 이어진 2017년,

민족의 특대사변들과 영광의 순간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안겨드는 이 시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지난 6년간 우리 조국은 한없이 위대해지고 국력은 더욱 막강하여졌다.

그 얼마나 자랑차고 눈부신 승리와 미증유의 사변들이 이 땅에 펼쳐졌던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해치려는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부러뜨릴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주체적혁명무력,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재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된 우리의 강력한 핵공격수단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룩된 승리이고 경이적인 현실이다.

그 모든 사변들을 하나로 관통시키며 세차게 맥동치는 력사의 진리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주체조선의 강대한 힘이시다!

바로 이것이 뜻깊은 12월의 조국의 하늘가에 세차게 나붓기는 최고사령관기를 바라보며 이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격정의 웨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군력강화가 아니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실 때만이 군력이 천백배로 강화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체득한 고귀한 진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6년이라는 기간에 이 귀중한 철리를 더더욱 폐부로 절감하였다.

천출명장의 위인상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12월의 언덕에서 우리가 걸어온 잊지 못할 력사적인 나날을 소중히 안아볼수록 인민군대가 지닌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선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령도사, 선군령도사가 깃들어있는 수많은 력사의 고장들과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신것은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할 업적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들에게 값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고 그것을 억척같이 지켜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일찌기 총대와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키우기 위해 헤쳐가시는 군령도의 길우에 격정없이는 받아안을수 없고 눈물없이는 새길수 없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무수히 새겨졌던가.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면서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고 최대열점지역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적아대치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시여 판문점은 오늘 자신께서 지켜주겠다고 하시며 초소의 군인들을 철수시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백m밖에 되지 않는 오성산의 까칠봉초소를 찾으시여서는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시며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였다.

그이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총대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에 새기며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이다.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마다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원쑤격멸의 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며 그들을 일당백의 펄펄나는 싸움군들로 키워주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쳐가는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군인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나날이 억세여지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시각에도 조국땅에는 창조와 건설의 노래소리, 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우리의 눈앞에 소중히 안겨오는 하나의 구호가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 구호를 보며 우리 천만군민이 폐부로 절감한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하고도 열렬한 조국애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이 극도에 달한 오늘날 사생결단의 의지,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조국의 운명을 지켜낼수 없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조국수호전의 최전방에 계시였다.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쳐주시려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신 천출명장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력사가 다 알지 못하는 애국헌신의 초행길을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자위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올랐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흙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스스럼없이 찾고찾으시여 새형의 첨단로케트개발의 초행길을 한치한치 열어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하기에 한 시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열화의 붉은 심장 꺼내들듯
용사들이 추켜든 저 글발은
그이 자신의 심장에 먼저 내리신
피끓는 돌격명령!
그 크나큰 가슴속에 활활 타번지는
사생결단, 멸사복무의 불길!

…

그렇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갈수록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이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비탈을 따라 뻗어간 소도로에 있는 구호문헌안내판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위하여》

불같은 조국애, 민족애가 흘러넘치는 글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격정속에 손수 구호문헌을 한자한자 가리키시며 조용히 **《내 나라, 내 민족》**하고 외워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구호문헌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민족자주정신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고, 우리 혁명가들은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이런 결사의 각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안으시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같은 열정과 헌신의 자욱을 수놓으시며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고계신다.

진정 백두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조국애를 지니시고 주체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운중의 행운이다.

세계는 머지않아 천하제일명장의 위대한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과연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전군사에 특기할 대회합

온 행성을 뒤흔든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은 그대로 원쑤들을 전률케 한 주체조선의 불퇴성이다.

그 격동적인 날과 달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넋으로 절감하는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다.

돌이켜볼수록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원쑤들을 발아래로 굽어보시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도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을 세계에 과시한 뜻깊은 사변으로 전군사의 한페지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이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의 비행사들을 평양으로 불러 푹 휴식시키고 대회도 성대히 진행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상상밖의 일이여서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정세가 매우 첨예한 시기였다.

적들의 악명높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대규모《쌍룡》련합상륙훈련이 개시되고 이어 력대 최대규모의 《맥스 썬더》공중합동군사연습이 계획되여있었다.

당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맥스 썬더》공중합동군사연습은 전투기와 수송기, 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하여 100여대의 비행기가 투입되는것으로 하여 그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전쟁연습을 훨씬 릉가하는것이였다.

우리 공화국을 노리는 적들의 비행기들이 어느 순간에 기습적인 공격을 가해올지 모를 긴박한 정세인것으로 하여 그때 전투비행사들은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을 안고 비행기좌실에서 박띠를 조이고 출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사에 특기할 비행사들의 대회합을 구상하고계시였으니 그이의 백두산악같은 담력과 배짱을 한두번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과 같은 때에 비행사전원이 평양으로 올라오면 전투직일근무는…》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고나서 일없다고, 조국의 하늘은 자신께서 지켜주겠다고 하시였다.

적들이 공중비적들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을 쉬파리떼처럼 뒤덮고있는 때에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우리 식의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정의 파도가 일어번졌다.

(참으로 백두산이 낳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이렇게 되여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으로 퍼져가자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였고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정녕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는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준 특기할 사변으로 주체조선의 전군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에 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게 하는 위대성교양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큰 실효를 거두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막장에 내려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탄부들에게 전선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실속있게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에 의하여 탄광안의 모든 갱막장들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석탄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로동신문통신원 전 순 희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키우시던 나날에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

주체102(2013)년 8월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였다.

력사적인 로작에서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군대의 총적방향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것이다.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한다. …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갈 투철한 신념을 새겨준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억세게 준비되게 되였다.

우리 식의 성전, 보복타격으로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하실 때였다.

훈련장은 지심깊이 끓어번지던 용암이 터져오르는듯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련속 날아가는 시뻘건 불줄기들, 하늘을 째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진 증오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 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렸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잘 째인 협동작전으로 련속 강타를 들이대는것을 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 정확성, 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타격을 들이대면 적들을 초멸일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섬을 벼락같이 타고앉는 전투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준비에서 래일이면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싸움군들이 다르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시며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짓뭉개버리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에서 살아남을 원쑤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단 한놈도 없다는것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몇해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로케트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였다.

발사 전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였다고, 전승절을 맞으며 터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시였다.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무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것은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의 전쟁위협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실 천출위인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본사기자 채 히 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우리에게는 인민의 군대가 있다

혁명의 령을 넘어 안고온 붉은 기폭에 천수별 아로새겨 영광은 더욱 빛난다는 노래소리가 조국방선 어디서나 우렁차게 메아리쳐오는 12월 30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날로부터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그 나날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수호와 조국번영의 위대한 력사가 흘렀다.

《11월대사변》의 장엄한 뢰성으로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이루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마음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 《로동신문》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하많은 사연을 안은 12월에 백두산에 오르시여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이 당보에 실린것이다.

혁명의 성산에 거연히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을 환희속에 우러르며 인민은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바로 그날 당보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평양도착소식이 지면을 꽉 채우고있었던것이다.

천만군민의 가슴속에서는 한결같은 격정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우리의 김정은장군,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

이 땅에 불어치는 온갖 역풍을 백두산바람으로 길들이시며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따라 순간의 침체도 없이 달려온 격동의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부름이 있다.

우리 인민군대!

생각해보면 지난 1년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해였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떠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에서 만났던 합숙생처녀들이 저마다 터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날부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부쩍부쩍 솟구치는 로동자합숙의 건설속도는 준마처녀라고 자랑많던 우리들을 무색케 하였다고, 완공의 날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밤을 잊고 일하는 군인건설자들을 볼 때면 정말 눈물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로동당시대의 문명의 높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우리의 건축술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위훈의 주인공들, 그들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군군인들이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뿐이였던가.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훌륭히 완공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에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도시에 들어앉아도 손색없을 멋쟁이공장으로 보란듯이 일떠선 대규모의 삼천메기공장에도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기어이 결사관철하는 인민군군인들의 땀젖은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있어서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적위협과 끈질긴 제재압살책동속에서 진행된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였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였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만났던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방송원들은 말했다. 부대의 전투원들이 보내오고있는 수많은 속지편지들, 그 한장한장에 제일 많이 적혀있는 병사들의 요청이 바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들려달라는것이였다고.

진정 그것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새해의 첫아침에 엄숙히 맹약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받들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군인건설자들의 피끓는 심장의 맹세였다.

그 노래를 투쟁의 전진가로 부르며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축구경기장을 몇개 합친것보다 더 큰 방대한 면적의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도 13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며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은 려명거리를 바라볼수록 인민군군인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에 머리가 숙어진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수많은 기공구들과 마감건재품들을 창안제작도입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가슴이 뿌듯해진다.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의 그 길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자라났다.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섬초소들이 오늘의 월미도, 불침의 전함으로 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며 우리 인민이 신심에 넘쳐 확신한것은 무엇이였던가.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이 땅우에 최후승리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오게 되리라는것이였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도전들이 앞에 가로놓이고있지만 이를 락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정세하에서 오히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을 락관하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진리로 새겨안는 인민의 가슴에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미래가 빛발쳐온다.

최후승리의 려명을 불러 백두산에 서계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엄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속에 필승의 신념이 백두의 메부리처럼 굳건해진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

본사기자 조향선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돕자!》,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인민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백두에서 시작된 원민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사상정신적으로 적극 고무하고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온 나라에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한 우리 인민군대는 올해에도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나가며 원민의 꽃을 무수히 피워왔다.

지난 1월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어느 한 인민군부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부대가 맡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한편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할데 대한 문제를 올해의 전투목표에 반영하였다.

지난해 육아원과 애육원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그들은 이번에는 새로 일떠서는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 많은 교구비품과 생활비품들을 만들어보내줄것을 토의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출입문과 창문, 책걸상, 옷장 등을 최상의 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한 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진 속에 짧은 기간에 수십종에 근 3천점에 달하는 교구비품과 생활비품들이 생산되여 학원들에 가닿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개학날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고급중학교와 소학교, 분교들에 수십종에 수백점의 교구비품들과 학용품, 체육기재들을 가지고 찾아가 교직원,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이 부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성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온 한해 사회주의협동벌에 높이 울려퍼진 군민아리랑의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인가.

인민군군인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넘겨주는 농기구들과 지원물자를 받아들며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전투장에 뛰여드는 군인들을 보며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군인들은 농장원들을 도와 고장난 양수기도 수리해주고 물도랑도 다시 정리하였으며 가물피해막이전투때에는 후더운 땀을 바쳐 드넓은 논밭을 적시였다.

농사일을 돕는 바쁜 속에서도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비롯한 건물들에 대한 보수작업을 전투적으로 벌리고 농장마을의 수백m에 달하는 울타리도 보수해주었으며 주변정리도 번듯하게 해준것이 바로 우리 인민군대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하나의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인민군군인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어느 한 협동농장의 잃어버린 소를 찾아준것도 군인들이였고 해상에서 표류된 어선을 희생적으로 구출한것도 우리 군대였으며 인민의 기쁨을 생각하며 희귀한 바다동물들을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었을뿐아니라 주둔지역의 혁명사적지구역에 참대버드나무, 은행나무, 잣나무를 비롯하여 10여종에 수만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은것도 인민의 군대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높이 발휘하고있는 원민미풍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온 나라에 차넘치는 원군열풍

병사들의 어머니

연탄군 읍 45인민반에 살고있는 김인숙동무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피두터운 원군일지를 보게 된다.

근 30년간 기록해온 일지는 수십권이나 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김인숙동무는 남편이 복무한 최전연부대에 가정의 성의가 어린 소박한 원호물자를 보냈었다.

고향집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어려있는 원호물자를 받아안고 병사들이 보내온 편지는 김인숙동무로 하여금 한생 원군의 길을 걸을 결심을 굳혀주었다. 하여 그는 집에 집짐승우리들을 더 늘이고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들을 병사들에게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군대가 강해야 나라도 강하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네 아들도 모두 최전연초소에 세웠다.

오랜 세월 병사들을 위해 진정을 바치고 그 집에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세우며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고있는 김인숙동무이기에 병사들은 그를 우리 어머니라 정담아 부르며 존경하고 따른다.

평범한 생활

라선시 라진지구 역전동 101인민반에 사는 허철규동무의 가정이 류다른 인연을 맺고있는 병사들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최전연초소 병사들이다.

몇해전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 허철규동무의 가정에도 불행이 닥쳐왔다. 례년에 없는 큰물로 거리와 마을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걱정은 한순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이 달려온것이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는 인민군군인들의 진정을 대하며 그는 인민군대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결심을 굳게 다졌다.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인민군대, 그때부터 허철규동무는 원군길을 더 줄기차게 이어갔다. 해마다 명절날과 기념일이면 의례히 병사들에게 원호물자를 보내는것이 이제는 그의 가정의 일과가 되였다.

원군, 이것이 그의 가정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에나 흐르는 평범하고도 예사로운 생활이 아니랴.

변함없는 가풍

의주군에서 살고있는 김경두전쟁로병의 가정은 대를 이어가며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가정이다.

김경두전쟁로병의 30여명의 자손들이 지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로병의 위훈담을 들으며 자란 자손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가정의 바통은 군사복무경력으로만 이어지는것이 아니라며 김경두전쟁로병은 온 가족이 인민군대후방가족답게 원군사업에도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그의 뒤를 따라 온 가족이 원군사업에 자기들의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자손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서는것, 이것이 김경두전쟁로병가정의 변함없는 가풍이며 생활인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초소와 잇닿은 마음

청진시 수남구역 말음2동에 사는 정봉일동무의 가정

얼마전 우리는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수십년세월을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고있는 청진시 수남구역 말음2동에 사는 정봉일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정봉일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방안으로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여앉아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들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이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원군가정의 애국의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 전초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정봉일동무의 가정이 원군길을 걷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의 어머니인 김옥희녀성은 나라없던 그 세월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이국땅에서 상가집개보다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하기에 김옥희녀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군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세 아들을 인민군대에 선참으로 입대시키였다.

정봉일동무가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였다.

어느날 텔레비죤화면에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온 김옥희녀성은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끝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계시는데 백성된 우리가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되여 그는 아들 정봉일동무와 함께 성의어린 원호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게 되였다. 정봉일동무는 그때 원호물자들을 받아안고 고향의 부모형제의 정을 뜨겁게 느꼈다고, 조국보위초소는 념려말라고 써보낸 인민군군인들의 편지를 받고 원군길을 한생토록 걸을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였다고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때부터 정봉일동무의 가정에서는 해마다 친형, 친누이가 된 심정으로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군 하였다.

그 나날 정봉일, 지순영부부가 지새운 밤은 얼마이고 걸은 길은 또 얼마였던가.

정봉일동무는 자식들도 원군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봉일동무의 둘째딸 정현희학생이 올린 글작품들을 보아주시였다는 꿈같은 소식에 접한 날이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로동자의 딸이 올린 소박한 글작품도 몸소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정봉일동무의 온 가정은 밤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날 정봉일동무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들아, 우리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잊지 말고 원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꾸나.》

이때부터 정봉일동무의 자식들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하나 생겨도 인민군군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인민군대를 위하는 정봉일, 지순영부부의 마음에는 끝이 없었다.

원군의 길에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정봉일동무의 가정은 오늘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병사들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정영철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는 청진시 신암구역 신진동의 학습강사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량심과 의리로 새겨가는 참된 삶의 자욱

중구골재사업소 지배인 최영남동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인간을 보는 가장 맑은 거울은 그가 걸어온 발자욱이다. 한 로당원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중구골재사업소 지배인 최영남동무의 삶의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시대가 부르는 참된 인간, 참된 당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최영남동무는 제대군관이다. 군복은 벗었지만 그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을 전호가에 세우고 복무의 나날처럼 정보로 걸어가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스스로 택한 길

혁명적량심을 지키는 길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이다.

몇해전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와 새 초소에 선 최영남동무는 첫걸음부터 힘있게 내짚었다.

하지만 아낌없이 땀을 쏟아도 그의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굳어진듯 서서 멀리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군 하였다. 그때마다 안해의 목소리가 뒤따르군 했다.

《어쩌겠어요. 세상에 일을 다하고간 사람은 없대요.》

제대명령을 받은 때부터 남편의 마음을 괴롭히고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는 안해였다. 그것은 마지막당적분공때문이였다.

당시 부대당조직에서는 새로 생긴 어느 한 초소군인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분공을 최영남동무에게 주었었다. 그는 그 집행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그런데 그 당적분공을 마저 수행하지 못한채 제대되게 되였던것이다.

물론 이제 와서 누가 탓하랴만 최영남동무는 초소의 정든 군인들에게 죄를 지은것 같아 한시도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하여 어느날 가족모임이 열리게 되였고 가족들과 형제들앞에서 최영남동무가 자기의 진정을 터놓게 되였다.

《눈을 감아도 초소의 군인들이 떠올라 잠들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일가가 한마음이 되여 원군길에 나서자는거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이고 나의 마지막당적분공도 수행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의 량심의 호소는 일가친척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원호물자를 준비하는 일에 일가친척들모두가 떨쳐나서게 되였다.

지난해 1월 눈보라치는 어느날 최영남동무는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동생 최명란동무와 함께 원군길에 올랐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발자욱이 원군길에 새겨졌던가.

우리는 여기에 그들이 마련한 원호물자의 수량이나 원군사업 회수를 구태여 적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도 원군사업을 통이 크게, 헌신적으로 진행하고도 그 어떤 평가도 마다했다는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한가를 감동깊이 느낄수 있기때문이다.

최영남동무와 그의 일가는 원군길만 걷지 않았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하였다.

이렇듯 그가 스스로 택한 길에 새겨진 발자욱은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려는 순결한 량심의 자욱자욱이였다.

정보로 가자

혁명적의리를 지키는 길은 가장 고결한 삶의 길이다.

지난해 2월 최영남동무앞에 뜻밖의 갈림길이 놓이게 되였다.

지금껏 애를 먹이던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겹쳐 몸이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던것이다.

이제는 사회보장을 받든가 아니면 경로동직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료일군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최영남동무는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이것은 분명 전투서렬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당에서는 충정의 70일전투를 호소했는데 제대군관인 내가 어떻게 자기 전호를 버릴수 있단 말인가. 심장이 뛰는 한 그렇게는 순간도 살수 없다.

최영남동무는 초인간적인 힘을 내여 일어섰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 사람이 아니겠소.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지 못할바엔 살아서 무엇하겠소. 그러니 나를 말릴 생각은 아예 마오. 군복은 벗었지만 나는 오직 정보로만 걸어갈것이오.》

이런 정신세계를 지닌 그였기에 경로동직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골재생산전투장으로 달려나가게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남다른 충정과 군인기질을 귀중히 여겨 그를 중구골재사업소 지배인으로 내세워주고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나래를 달아주었다.

그는 충정의 70일전투, 충정의 200일전투의 전기간 현장에 가설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려나갔다. 조건은 어려웠지만 그는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앞채를 메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 짧은 기간에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준설선과 골림배들의 개조조립전투를 비롯한 골재생산의 물질적토대축성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점령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 과정은 병마와의 치렬한 싸움과정이기도 하였다.

참기 어려운 진통으로 의식을 잃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그는 보답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참된 인간은 량심에 살고 의리에 산다고 했다.

그렇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순결한 량심의 길, 고결한 의리의 길을 소문없이 걷고있는 이런 참된 인간들, 이런 참된 당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기에 사회주의 내 조국이 그토록 강한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영철

친혈육의 뜨거운 정을 안고

혜산시에 살고있는 전쟁로병,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이 잊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량강도수혈소 의사들과 종업원들이다.**

그들이 혈육의 정을 안고 전쟁로병,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을 위해 걸어온 자욱자욱은 참으로 감동깊은 사연들로 엮어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와 혁명적동지애의 세계에 자기를 비추어볼수록 수혈소의 당세포위원장 김영숙동무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실 수혈소에서는 해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하지만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면 아직도 미구석이 많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수혈소당조직에서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은 물론 전사자가족들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온 집단이 호응해나섰다.

우리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것은 자기들의 도덕의리이고 더없는 보람이라고 하면서 수혈소의 의사들과 종업원들은 스스로 이 길에 나섰다.

날이 갈수록 그 대렬은 늘어났다.

당조직에서는 진료조건개선과 설비현대화, 의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수혈소앞에 제기되는 과업이 많았지만 이 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많은 품을 넣었다.

시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수혈소의 의사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종업원들이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이 지닌 높은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올해에도 그들은 전쟁로병,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전승절을 비롯한 명절, 기념일들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을 찾아가 노래도 불러주고 집에서 마련한 영양식품도 안겨주며 그들을 기쁘게 해주군 한 소장 장선영동무와 의사들인 장경화, 최혜정, 한숙, 방은심동무를 비롯한 온 집단이 미덕미풍의 주인공들로 되였다.

어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뿐이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고결한 도덕의리의 길을 걷는 이런 미덕미풍의 주인공들이 무성한 숲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본사기자 채인철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들 전달

우리 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꾸바혁명승리 59돐에 즈음하여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와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29일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와 정의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2017년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2017년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특기할 해였다.

우리 공화국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올해에도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전대미문의 군사적공갈과 제재압박소동에 매여달렸으며 그 광증은 력사이래 최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끈질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공갈위협을 끝장내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줄기찬 투쟁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거족적승리를 안아왔다.

《유일초대국》의 오만과 허세를 세계면전에서 통쾌하게 쳐갈기며 새로운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조선의 국력과 권위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위대한 병진의 위력으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한 주체조선의 2017년 투쟁사를 전하기 위하여 이 상보를 발표한다.

＊ ＊

조선반도정세는 세계정치정세의 축도이다.

지난해말 국제적《불간섭》, 《화목과 안정》의 미명하에 《미국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권을 장악하게 된 트럼프패거리들은 시작부터 자기의 기만적인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를 류례없는 동란과 전쟁위협속에 몰아넣었다.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무지막지한 강권과 전횡은 특히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에로 치닫게 하였다.

새해를 전후하여 트럼프가 《핵무기에 대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핵능력을 대폭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를 개발》하라고 떠드는 속에 미군부와 국회에서는 《북핵시설격퇴》니, 《상시준비태세》니 하는 전쟁폭언들이 튀어나왔다.

조선핵문제해결을 외교안보정책의 1차적사항으로, 대조선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확정한 트럼프행정부는 대조선《점군법이자 곧 선제타격》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력대 행정부들의 정책을 능가하는 강경적대시정책에 매여달렸다.

백악관의 고위인물들과 언론들을 통한 위협공갈도 모자라 트럼프가 트위터에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며 군사적《경고》문들을 련발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그로 하여 국제사회의 초점은 년초부터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는 해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은 결코 변할수 없으며 우리 당이 밝힌 병진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최후승리의 지름길임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새해 행군길을 명시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공식천명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도 적극 기여할것임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도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전쟁연습들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선임자들의 대조선정책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 2월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과 《F-35B》, 《F-22랩터》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을 련이어 급파하면서 불안정한 정세를 각일각 증대시켰다.

2월 12일 조선로동당의 권위, 우리 국가의 존엄과 기상이 응축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장쾌한 뢰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주체탄, 주체무기의 거대한 위력은 대세와 상대를 모르고 날뛰는 미국의 면상을 드세게 후려갈겼다.

3월 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동시다발적인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수십만의 침략무력과 핵항공모함타격단들까지 동원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기를 꺾어놓았다.

18일에는 우리 식의 새로운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의 단번성공으로 주체적인 로케트공업의 새로운 탄생과 국가핵무력완성의 만년토대축성을 선포하였다.

《3.18혁명》의 승리는 위대한 병진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잡고 미제국주의와는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와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올해의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 군종합동타격시위들은 수리아에 대한 대항적인 미싸일공격을 그 누구에 대한 《경고성》행동으로 광고하는 한편 가소롭게도 《평양진격》, 《특수작전》광기를 부리며 《4월전쟁》위기를 몰아오는 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불세례뿐이라는것을 새겨주었다.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미국식허세를 폐창내며 우리 공화국은 국가핵무력강화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나갔다.

5월 14일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와 련이어 전개된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와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의 위력시위는 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는 미국의 정수리를 정신차릴새없이 두들겨댔다.

핵무력완성의 직선주로를 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장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7월 4일과 28일에는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련이어 솟구쳐올랐다.

《3.18혁명》의 고귀한 산아인 《화성-14》형의 성공적발사들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며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민족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한 특대사변이였다.

뜻깊은 전승의 7월을 빛나게 장식한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또다시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조선의 엄정한 경고와 주체적핵무력의 눈부신 전진속도에 초롱한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교란자로서의 승냥이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미국은 앞에서는 《정권전복도 안하고 침략도 안하며 체제도 보장할것》이라느니, 《믿어달라.》느니 하며 겁발린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핵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5월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항공모함타격단들과 전략잠수함 등 핵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에 계속 들이밀었으며 특히 우리를 노린 《B-1B》핵전략폭격기들의 폭격훈련을 매월 정례화한다는것을 공표하고 실지 강행해나섰다.

이후 새로운 대조선제재법, 유엔《제재결의》가 련이어 조작되고 《예방전쟁》, 《선제타격》폭언들과 《8월전쟁》설이 튀어나오는 속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라느니,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것》이라고 고아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흉악한 속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하고 명령을 기다릴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의 발표는 미본토전역을 최대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전략군의 위력시위사격준비상태에 대한 최종점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17》전쟁연습을 앞두고 우리의 전략대상들에 대한 타격계획까지 공개하며 지랄발광하던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와 일본렬도를 날아넘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태평양실전사격은 현지를 싸다니며 화약내를 풍기던 호전광들의 《전쟁불사》광증을 폭사발로 만들었다.

이 나날 유엔무대를 어지럽히는 미국의 공갈과 위협에 납작 엎드려 대조선《제재결의》에 동참한 추종세력들, 주변국들의 비렬한 행태는 우리가 살길, 우리가 갈길은 오직 병진의 길, 자력자강의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었다.

우리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9월 3일에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핵공갈력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믿음직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한 승리중의 대승리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와 함께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주체식열핵무기의 완성은 장차 조미사이의 최후대결전이 미국본토에서 전개될것임을 예고하였다.

조선은 9월 12일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이미 거덜난 유엔제재따위에 또다시 매달릴 때에도 끄떡없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전력화실현으로 우리의 최종목표가 바로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것임을 각인시켜주었다.

얼이 빠진 트럼프는 9월 19일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나발을 불어대여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미국내에서까지 《국제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한 히틀러》, 《재앙을 불러오는 미치광이》로 규탄단죄한것은 미국이 떠드는 《세계적인 위협》의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으로 된다.

미국의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에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는 주체조선의 초강경대응의지가 천명되였다.

우리의 초강경선언이후 6일동안에만도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온 나라에는 멸적의 보복의지가 활화산처럼 폭발하였다.

10월 7일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는 우리 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조선의 핵무기의 숭고한 사명과 성격,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힘있게 천명하였다.

리성을 잃은 트럼프와 그 패거리들은 《단 한가지 효과적방안》, 《군사적선택안》을 력설하며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동원한 사상 최대규모의 《고강도련합훈련》강행으로 나왔다.

그에 앞서 조선반도주변에서 작전중인 미태평양함대사령부 함선들에 《토마호크》순항미싸일발사준비경고명령이 하달되고 미공군은 랭전시기처럼 핵무장한 전략폭격기 《B-52》의 24시간비상출격체계를 부활시켰다.

괌도에 《B-1B》핵전략폭격기용폭탄 등 80여만발의 각종 탄약이 추가반입되고 11월에는 조선반도수역에 한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집결되였다.

외신들은 《미군이 태평양상에서 벌리려는 새로운 해상군사연습은 명백히 북조선에 대한 전쟁선포로 된다.》, 《3개의 항공모함전단의 집결은 미해군무력이 전투행동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정계는 물론 핵심측근들조차 트럼프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핵무기사용권한을 제한해나선 사실들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11월 29일 세계적군사대국인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이 지구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성명하였다.

대조선 《테로지원국》재지정과 대규모련합공중훈련, 해상봉쇄기도, 새로운 유엔 《제재결의》조작 등 이해의 마지막까지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끈질기게 감행되는 미국의 책동은 자기 위업의 승리를 확신한 조선의 전진을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었다.

도리여 트럼프의 집권 1년간 미국에 차례진것은 세계적망신과 공포뿐이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랭전이래 처음으로 매달 하루씩 주민대피훈련이 실시되는 수치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국제사회는 《힘의 우위》를 떠들며 세상을 소란케 하던 트럼프가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구걸행각에 오른것부터가 미국의 패배를 스스로 인정한것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과 대조선전문가들까지 《2017년은 북조선에 있어서 미국의 핵공갈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력을 보유한 특별한 해》, 《우쭐대던 미국이 새로운 핵강국의 출현으로 비칠거리고있다.》, 《트럼프가 올해에 무엇인가 가르쳐준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조선이 절대로 자기의 핵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사실뿐이다.》라고 조소하고있다.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주체조선이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섰기에 올해에 세계를 위협하던 핵대전은 방지되였으며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은 지켜졌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비난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속에 그 패권적지위와 영향력은 렬세에 빠져들고 렬강들사이, 《동맹국》들사이의 새로운 모순과 알륵이 표면화되여 국제정치흐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조미대결의 주도권은 우리의 손탁에 확고히 쥐여져있으며 장차 조선반도정세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대로 흘러가게 되여있다.

참으로 2017년의 날과 달들은 우리 국가와 인민이 최후승리의 만능의 보검인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새로운 전략국가, 주체의 핵강국인 조선은 선언한다.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그리고 강대한 조선의 실체는 영원히 거세할수도 말살할수도 없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이 행성우에 몰아치는 온갖 역풍을 단호히 짓부시며 력사의 흐름을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힘차게 주도해나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12월 29일

평 양

끝없이 이어지는 원군의 길

북창군위생방역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 전초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북창군위생방역소로 말하면 일 잘하기로 소문난 단위이다. 하지만 방역소의 자랑찬 행로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자욱도 새겨져있다.

인민군대원호를 잘하는 단위!

이 부름속에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이는 소장 리인전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월이였다.

가족들과 한자리에 앉아 텔레비죤을 보던 소장 리인전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시찰하시였다는 감동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앞으로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를 새겨안는 그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새해 첫날에 병사들부터 찾으시여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할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갈 의지가 그의 한가슴에 굳게 자리잡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막상 인민군대를 도와나서자고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는 온 나라가 고난을 겪던 때여서 그의 가정형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남아서 인민군대를 원호하는것이 아니다. 조국방선을 지켜선 군인들을 생각하며 한줌의 쌀이라도 절약하고 모으면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밑천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다지며 리인전동무와 군의 어느 한 유치원에서 일하던 그의 안해도, 자식들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집짐승기르기를 시작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집짐승들은 잘 자랐고 이듬해 4월에는 리인전동무의 가족이 첫 원군의 길을 떠날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20년간 해마다 리인전동무와 가족들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원호물자들을 보내주고있다.

그들은 20년간을 하루같이 원군의 길을 걷고있다.

하지만 리인전동무의 마음속 깊이에는 군민대단결의 정을 나누던 추억 그리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군상처럼 새겨져있다. 아마도 그 모습이 자신들도 모르게 맺어진 군인들과의 정이며 세월이 흘러도 계속 찾아가고싶고 또 변함없이 이어지는 원군의 정일것이라고 리인전동무와 그의 안해 리윤희동무는 감회깊게 이야기하고있다.

오늘날 방역소종업원들속에서는 소장 리인전동무의 모범을 따라 인민군대를 원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그 어떤 명예도 바람이 없이 인민군대원호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갈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좋은 날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흔들림없이 원군길을 이어가고있다.

특파기자

영웅의 넋은 모교와 함께 살아있다

대동강구역 동문초급중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

대동강구역 동문초급중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문수1동 5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장봉선녀성을 영웅의 어머니라고 정담아 부른다. 근 20년세월 이 부름은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다.

그 사연을 우리는 얼마전 동문초급중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교가 낳은 박성일영웅의 어머니인 장봉선녀성과 마주앉은 기회에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저녁어스름이 깃들도록 교정을 걷고있는 한 교육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당시 교장사업을 맡고있던 황애숙동무였다. 아담한 교사와 운동장 그리고 체육기재들에서 제자의 체취가 그대로 안겨오는것만 같아 그의 마음은 뜨거워올랐다.

몇해전 바로 이 교정을 나선 박성일병사가 얼마전에 군사임무수행중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것이다.

학교의 첫 공화국영웅.

장한 제자를 둔 긍지감으로 달아오르는 가슴을 식히며 구내길을 걷던 그의 귀전에 낮에 아들의 공화국영웅메달과 영웅증서를 안고 학교에 찾아왔던 박성일영웅의 아버지가 하던 말이 울려왔다.

《당에서는 이렇게 우리 성일이를 값높이 내세워주었는데… 영웅의 부모답게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되새길수록 황애숙교장은 왜서인지 마음이 무거웠다.

하여 그는 여러명의 교원들과 함께 박성일영웅의 집으로 향했다.

동문초급중학교와 영웅가정과의 각별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학교의 일군들이 여러번이나 바뀐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리라고는 그때엔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장봉선녀성이 오늘도 뜨겁게 추억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언제인가 밤늦게 찾아온 황애숙교장을 보며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교장이 천에 정히 싸가지고온것은 바로 영웅증서와 함께 나란히 걸어놓을 아들의 사진이였던것이다.

그때에야 장봉선녀성은 얼마전에 그가 아들이 졸업반시절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연이며 동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가운데서 제일 잘된것으로 골라 독사진으로 새로 형상해온 가슴뜨거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자기 손으로 사진을 영웅증서와 나란히 걸어놓은 황애숙교장은 그앞에 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영웅증서와 함께 성일이의 사진을 걸어놓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영웅의 넋을 더욱 깊이 심어줄수 있을게 아닙니까. 성일이 어머니도 매일같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수 있게 됐지구요.》…

황애숙교장의 이런 진정은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영웅의 넋을 심어주는 자양분으로, 영웅가정과 맺은 혈연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그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교와의 각별한 인연과 더불어 영웅가정에 생겨난 《우리 가정수첩》의 일부 내용들로 대신하려고 한다.

…

2003년 12월 31일

올해에 동문중학교(당시)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230여차례나 우리 집을 찾았다. 이 수자로 그들의 뜨거운 진정을 다 헤아릴수만 있다면…

2004년 7월 27일

금시라도 군사복무를 마친 성일이가 집문턱을 넘어서며 어머니! 하고 부를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그런데 황애숙교장과 여러 교원들이 성일이를 대신하여 조선옷을 지어가지고 찾아와 나를 고무해주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한가정, 한식솔이다.

2009년 5월 10일

오늘 성일이 모교에 영웅소개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그앞에서 제2의 박성일이 되겠다고 맹세를 다졌다.

우리 성일이는 오늘도 모교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2012년 9월 24일

둘째인 성철이가 새 가정을 이룬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리복녀교장선생님과 학교의 교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이 지성을 다해 차려온 결혼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여기에는 영웅의 넋을 빛내이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있다.

2012년 11월 13일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장으로 떠나는 나를 뜨겁게 환송해주었다. 대회 전기간 그 모습이 눈에 밟혀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2016년 12월 31일

안명숙선생은 매번 찾아올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성일이의 사진앞에서 정의모임을 가지였다. 그리고 친딸처럼 우리 가정생활도 보살펴주었다. 학생들은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모두가 나의 아들 성일이였다.

2017년 7월 27일

옛 교장들인 황애숙, 리복녀선생님들과 현재 교장사업을 하고있는 정수한선생님,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전승절을 축하해주었다. 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찾아오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이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성일이가 영웅으로 자랄수 있었다는 생각이 자꾸 갈마든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

…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혁명적의리는 영웅과 그를 낳은 모교의 스승, 후배들사이에 이렇게 꿋꿋이 이어지고있었다. 영웅의 넋을 이어가려는, 영웅의 가정을 위해 진정을 다 바치려는 동문초급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지난 기간 이 학교에서 모든 교육교양사업은 교직원, 학생들이 박성일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로 지향되였다.

공부도 체육도 잘하고 품성도 모범이였으며 노래도 잘 불렀던 박성일영웅 특히 남을 위해서 태여난것처럼 동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였던 그의 정신세계는 언제나 학교학생들뿐아니라 새 세대 교육자들에게도 거울이였다.

영웅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누구나 애쓰는 과정에 학교는 수십명의 10월8일모범교수자, 여러명의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나라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였다.

영웅의 심장의 박동은 이렇게 모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넋을 깊이 새겨주며 오늘도 높뛰고있다.

본사기자 조 향 미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대상설비생산에 큰 힘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더 높은 목표밑에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대상설비생산을 위한 전투목표와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방대한 생산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과학기술중시에서 찾은 공장의 일군들은 매주 현장에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여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이들은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작업조건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현장에서 앞채를 메고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신속있게 하여 대상설비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첫 공정을 지켜선 소재준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연신기틀에 대한 관리와 운전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부분품생산을 적극 늘이고있다.

청년조작기구직장과 합조립직장에서는 질높은 동력분전함들과 조종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줄 애국의 마음을 안고 생산돌격전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은 대상설비생산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공정별검사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켜 각종 전기조작기구들의 기술지표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형타직장의 로동자들은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대상설비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과 장비들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이들은 더 많은 설비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열의밑에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생산과정에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일반기구직장의 로동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전자기구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구장비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높이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이 나날에 혁신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온실남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김광림 찍음

주체강국의 존엄을 빛내여가시는 강철의 령장

주체강국의 앞길에 백승의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고있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이 이룩되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용이 만천하에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또 한분의 위대한 천출명장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대경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령도자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승승장구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은 특전중의 특전이고 행운중의 행운이다.

무비의 담력으로 력사의 폭풍을 길들이는 필승의 령도따라 시련의 고비와 험준한 고난의 언덕을 과감히 넘고 헤치며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야말로 주체조선의 억센 힘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는 마땅히 장군형의 정치가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백승의 령군술과 비범한 군사적자질,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도전이 날로 엄혹해지는 준엄한 정세하에서 눈앞의 리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굳건히 담보해주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의 빛나는 집결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국방공업전선의 총사령관, 정치위원이 되시여 군력강화의 험한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였다. 삼복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시로 주체무기개발현장들과 시험장들을 찾고찾으시여 비범한 예지로 문제해결의 묘술도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국방부문 전투원들에게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애국열을 북돋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으신 위대한 스승, 절세의 애국자를 력사는 알지 못한다.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３.１８혁명》과 《７.４혁명》, ７.２８의 기적적승리, 《９월의 열핵폭풍》에 이어 온 행성을 진감시킨 《１１월대사변》과 같은 기적적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원쑤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주체무기, 주체탄들로 그쯘히 장비된 최정예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자주적신념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희세의 위인이시다.

령도자의 신념과 담력은 엄혹한 시련속에서 더욱 뚜렷이 검증되는 법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핵공갈책동은 최악의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극단적인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들고나와 경제, 외교적수단을 총발동하여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일대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침략전쟁연습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의지를 흔들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미제가 최근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우리의 코앞에 끌어들여 위협공갈을 가하면서 도발적인 핵선제타격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악명높은 스텔스전투기들과 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사상최대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린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기를 전례없이 고조시킨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망동이였다.

지금 신심드높이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기상앞에 질겁한 미제는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는 한편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군사적타격을 시사하는 전쟁폭언들을 람발 늘어놓으면서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원쑤들은 그 어떤 제재봉쇄와 군사적위협공갈로도 우리를 절대로 놀래울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진보적인류가 ２１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강의한 의지를 지니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은 복잡하게 얽힌 사물현상의 본질을 명백히 밝혀내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이며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단호히 맞받아나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담력과 배짱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백승의 령도를 받들어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지금 세계여론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뇌부는 미국을 파악하고있지만 미국은 조선의 최고사령관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있다, 조미대결전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것인가는 뻔하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타승할 무진막강한 군사력을 다지시고 령활무쌍한 지략과 담력으로 대적도 쥐락펴락하시며 천만군민을 이끌어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은 정 철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신분

로씨야출판보도물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이 8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생하실것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업적》, 《평화를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문헌,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신문 《브이보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시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으신 그이의 업적은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하바롭스크변강인터네트신문 《제브러 네쉐》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조선인민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의 공적은 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만년토대로 되고있다.

김정일,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칭송되실것이다.

인터네트통신 예로페이-메쉐는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며 령도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그이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위인을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인터네트잡지 《렌취취》, 인터네트홈페지 《빠트리오띄 모스크비》도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찬양하고 우리 나라에서 수령영생위업이 빛나게 실현된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1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회고 캄보쟈위원회 위원장인 콩 쌈올 왕궁담당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정부 왕궁성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시민사회단체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룡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과 《룡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3일 서울 룡산구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것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룡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내용을 담은 노래를 합창하면서 미제침략군이 오염시킨 기지를 정화하고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전쟁불사를 떠들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를 단죄하는 《엎드려 사죄하라, 트럼프여》라는 제목의 시가 랑송되어 참가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임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참가자들은 룡산미군기지환경오염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여 기지가 온전히 반환되는 날까지 중단없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선거개입사실 폭로

보도에 의하면 전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괴뢰군 싸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하여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립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27일 기밀해제된 《북한의 대남싸이버심리전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괴뢰국방부 문건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한달 앞두고 《우익결집보호》와 《록색선전차단》 등 5단계 전술방안을 선거당일까지 실행하였다.

괴뢰국방부는 《한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하면서 창의적전술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선거당일까지 한달간 인터네트싸이트에 약 190편의 여론조작편집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퍼뜨리도록 군싸이버사령부에 지시하였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하던 리명박일당의 주장이 거짓이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더는 숨길수 없게 되였다.》, 《MB와 함께 김관진 등 관련범들을 구속심판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멸을 재촉하는 광기어린 추태

우리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이후 일본것들이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의 앞장에 서서 더욱 지랄발광하고있다.

최근 유엔에서 대조선《제재결의》 제２３９７호가 조작되자마자 수상 아베는 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보다 철저한 리행으로 조선이 정책을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런가 하면 내각관방장관 스가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도 《제재결의》의 완전한 리행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수개월내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것이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악담질을 해댔다.

１２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차지한 기회를 리용하여 아베패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와 상급회의 등을 련이어 벌려놓고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１５》형시험발사와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우리를 대상으로 추가독자제재안까지 발표하였다.

미국이 우리를 싸이버공격사건의 배후로 지목하자 일본것들은 제일먼저 지지립장을 밝혔다. 지어 ２０１７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１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에 대한 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광기는 트럼프패를 찜쪄먹고있다.

그야말로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해 남을 물고늘어지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만이 부려댈수 있는 광기어린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고도화조치들은 세기를 이어오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적선택이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명백히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전략적대응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마치도 제 땅에 핵탄이 떨어지기라도 한것처럼 야부재기를 치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여기에는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아베일당은 천하의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자리를 차지한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전범국가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일본을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시켜보려 하고있다.

그것을 위해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며 저들내부에 《안보불안》소동을 일으키고 미국, 남조선괴뢰들과 각종 대조선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는것과 함께 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구실로 정부기관청사 구내에까지 요격미싸일을 상시 배치해놓는 소동을 벌렸는가 하면 요격미싸일기동전개훈련에 일반주민들까지 동원시켜 대피훈련을 한다며 분주탕을 피워댔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될세라 그에 찬물을 끼얹으며 앞장에서 대결북통을 두드려대고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질러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천년숙적이다. 그러한 일본이 제 땅덩어리를 미국의 대조선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내맡긴것도 모자라 우리의 정의로운 핵을 걸고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광분하면서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는것이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것들의 가증스러운 꼴을 볼수록 치가 떨리고 눈에서 불이 인다. 이 세상 가장 철면피하고 간악한 아베패거리들을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다.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를 아예 바다속에 수장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격노한 우리 인민들의 대일적개심의 분출이다.

일본당국은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우리 인민의 대일보복의지가 격앙될수록 저들의 처지가 위태로와진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인민들은 아베일당의 군국주의마차를 멈춰세우지 못하면 제2차 세계대전말기때보다 더 끔찍한 대참변을 당할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성하여야 하며 재앙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지체없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천지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다

이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인류가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들어섰던 ２０１７년은 평범하게 흐르지 않았다. 년초부터 세계는 테로공격으로 혼란속에 빠져들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온 한해동안 테로공포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반테로》와 《평화수호》를 방패로 내들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일삼았다.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의 참화속에 빠져들었다. 일부 나라들은 대국들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기를 보존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였으며 민족 및 종족간, 교파들사이의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어떤 나라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기가 죽어 원칙을 저버리고 굴종의 길로 나갔다.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행동이 잘못된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대가 없이 눈앞의 리익만 생각하면서 타협의 길을 택하였다. 국제무대에서는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 행성의 제왕행세를 하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 세계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앞으로만 전진한 나라, 미국의 강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였다.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은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들이밀며 군사적위협을 가하여왔고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전대미문의 제재도 들이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조선은 끄떡하지 않았다. 미국이 제재의 그물을 쳐놓고 그 효과성을 운운하고있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현대적인 공장들과 거리를 일떠세웠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쳤다. 강위력한 군사적힘으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남을 넘겨다보지 않았다. 제할소리를 당당히 하고 자기의 결심대로 행동하였다.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온 한해동안 세계를 진감하였다.

하다면 세계는 조선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였는가.

２０１７년 첫날부터 세계의 초점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다. 미국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이 또 어떤 사변으로 이해의 첫시작을 떼겠는가 하는것때문이였다. 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우리가 지난해 1월 첫 수소탄폭음을 울린것처럼 충격적인 사변으로 세계를 놀래울것이라고 하였다. 세계 각국의 대중보도수단들도 제나름대로의 예측을 하면서 보도를 날리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을 온 세상 사람들이 주시하고있던 지난 1월초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전파가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련이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로동자합숙,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 새로 건설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보도가 온 우주공간을 꽉 채웠다.

이해의 첫날부터 테로와 정치적 혼란 등의 문제를 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열변을 토하고 여기저기 뛰여다니고있을 때 태연자약하게 인민생활과 관련된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뵈옵고 온 지구가 끓었다.

많은 분석가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이렇게 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새해의 첫 현지지도는 국산화의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한것이다. 새로운 제재가 실시되여도 큰 타격이 되지 못할것이다. 대조선제재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정초부터 시작된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련이은 현지지도는 군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아동용가방을 보며 환하게 웃는 영상에는 강한 군력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제에 주력해나가는 조선을 건드릴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조선이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만들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일리가 있는 예측이였다. 실지 일은 그대로 번져졌다.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첫 현지지도는 포사격경기에 대한 지도로 시작하여 군사분야에 대한 현지지도로 마감하였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그렇게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비한다며 소란스럽게 떠들던 미국은 메사하게 되였다. 미국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것이나 같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것을 모면해보려고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에 매달렸지만 우리의 위대한 자력자강의 동음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우리 천만군민은 려명거리와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순천메기공장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워 비약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형의 ８０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기였다. 적대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 강해지고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는것,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있고 자력갱생의 위대한 전통이 있는 한 그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비관과 락망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한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서 세계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미국은 제재와 봉쇄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 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조선이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에는 조선의 전진을 막을 방도가 없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실패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제재와 봉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보려고 미쳐날뛰던 미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개망신만 당하였다.

주체조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큰걸음을 내짚었다.

미국이 기대를 걸고있는 군사적힘도 그것을 막지 못하였다. 우리의 경제건설은 물론이고 핵무력강화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지난 ２월 １２일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２》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북극성-２》형시험발사성공은 그 어떤 역경이 천겹만겹 덧쌓인다 해도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올해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다.》고 호언장담하며 어떻게 하나 우리 국가의 핵무력강화를 막아보겠다고 광분하던 미국은 무분별한 도박에 매여달렸다.

３월에 들어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각종 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군사적힘으로 우리를 놀래워보자는것이였다. 우리에 대한 무지의 극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소동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초강경대응조치로 맞받아나갔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세계앞에 선언한 우리의 립장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탄도로케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날아올랐다.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비드는 원쑤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족탕쳐버릴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미국의 트럼프패거리들은 여기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도전적으로 나왔다.

５월초 괌도에서 리륙한 핵전략폭격기 《B-１B》편대가 은밀히 조선동해상공에까지 진입하여 이미 전개되여있던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와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비롯한 전략적타격수단들과의 협동작전절차와 방법을 숙련한 다음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에 대한 핵폭탄투하훈련을 벌렸다.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강행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즉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적들의 도발행위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대응조치는 더욱 강해졌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１２》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２》형을 비롯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의 시험발사를 련이어 진행하였다. ７월에 들어와서는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１４》형 시험발사를, ９월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통쾌하게 성공시켰다.

조미대결의 전략적구도가 완전히 바뀌여졌다. 핵강국으로서의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내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본토안전을 위해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찬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는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나발을 줴쳐대다 못해 유엔무대에서까지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절멸》이라는 광언을 마구 내뱉았다.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에 열을 올리였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날뛰는 미국을 정의의 핵으로 완전히 제압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며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１５》형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３.１８혁명》과 《７.４혁명》, ７.２８의 기적적승리, ９월 ３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탄생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로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혔다.

경이적인 사실앞에서 세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 행성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대는 불량배국가 미국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제압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어떤 정세의 변화와 중첩되는 천만시련속에서도 순간의 멈춤과 주저도 없이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자랑찬 승리만을 안아온 주체조선의 모습에서 세계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의 가련한 몰골을 보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쳐도 위대한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사회주의조선은 끄떡하지 않으며 최후승리는 반드시 조선의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더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세계는 다가오는 ２０１８년에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주체조선의 모습에서 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것이다.

리 학 남

ㄱ-712064 (정기간행물번호 제１３００３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３호) 전 화: 교환 ３７３-２３１２, 편집국 ３７３-１３２８, 론설원실 ３７３-５４２８, 당력사교양부 ３７３-５５２８, 당생활부 ３７０-４５２８, 사회주의교양부 ３７２-３５２８, 공업부 ３７３-０２６３, 농업부 ３７３-５６２８, 과학문화부 ３７２-４６２８, 조국통일부 ３７２-４８８２, 국제부 ３７３-４７２８, 사진보도부 ３７３-０７１２, 특파기자부 ３７２-４３２８, 편집위원회